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健實化를 위한 政策方向

林 陽 澤
〈漢陽大學校教授·經博〉

1. 序 言

우리나라는 第1의 跳躍期間(1962~81年)중 △ 貧弱한 賦存資源 △ 低貯蓄에 의한 投資財源의 不足 △ 低位의 技術水準 △ 國內市場의 狹小 △ 南北分斷으로 인한 政治的 및 社會的 不安과 過重한 防衛費負擔 등의 어려운 與件下에서 △ 豊富한 低賃金熟練人力資源 △ 外資導入 △ 先進技術의 單純模倣 △ 世界의 好況에 편승한 海外需要의 急增 등에 기초를 둔 高度成長戰略에 의하여 年平均 8.3%이라는 經濟成長率을 유지해 왔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絶對貧困으로부터 탈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 産業構造의 高度化 △ 工業構造의 高度化 △ 輸出商品構造의 高度化 △ 消費支出構造의 高度化를 통하여 先進國型 經濟構造로 변환해 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低賃金熟練勞動과 總資本(구조물, 장비, 재고자산, 토지, 해외투자, 주택)投入의 增大에 의한 外延的 成長戰略은 勞動供給의 측면과 資本供給의 측면에서 본 對內的 與件의 惡化로 인하여 그리고 △ 後發開途國의 追擊 △ 新興工業國間의 競爭 深化 △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 強化 △ 先進國 技術革新의 尖端化 및 後進國 技術水準과의 隔差深化的 측면에서 볼 수 있는 對外的 與件의 變化로 인하여 그 限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上記와 같은 對內·外的 與件의 惡化속에서 4次에 걸친 20年동안의 經濟開發計劃을 통하여 부단히 갈구해 왔던 自立經濟基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또한 持續的 成長을 어떻게 영위해 갈 것인가는 오늘날 우리 民族에게 주어진 重大한 歷史的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歷史的 課題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根本的이며 效果的인 方案은 外型的으로는 高度化되었으나 內部的으로는 不健實하고 脆弱한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를 健實化시켜야 된다는 것이라고 筆者는 굳게 믿는다. 왜냐하면 持續的인 經濟成長은 産業構造라는 엔진(engine)에 의하여 稼動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物價安定 및 雇傭安定으로 나타나는 對內均衡(internal equilibrium)과 國際收支均衡으로 나타나는 對外均衡(external equilibrium)의 調和狀態라고 정의할 수 있는 自立經濟의 基盤도 결국 産業構造에 의하여 具體化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第5共和國의 國政指標인 正義社會의 具現과 福祉國家建設의 측면에서 보면 産業構造의 健實化問題는 매우 중요한 當面課題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正義社會의 具現은 所得分配構造의 改善을 통하여 가능해지는 것인데 所得分配는 經濟成長과 不可分の 關係에 놓여 있으므로 持續的 經濟成長을 가동시키는 産業構造의 健實化問題를 도외시 하고서는 所得分配構造의 改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며 福祉國家의 建設은 雇傭增大와 福祉財源調達에 의하여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健實化를 위한 政策方向

가능해지는 것인데 效果的인 雇傭增大와 合理的인 福祉財源調達은 健實한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本稿는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健實化를 위한 政策方向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우선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現況을 5가지 즉 ①産業別 GNP 構成比 및 就業者構成比 ②産業別 成長率 및 經濟成長寄與率 ③産業別 聯關構造 ④工業構造別 GNP 構成比 ⑤工業構造別 産業聯關構造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上記와 같은 分析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健實化를 위한 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現況

産業構造란 特定の 財貨와 用役을 生産하는 各産業이 各各의 生産技術에 의한 投入과 生産을 통하여 相互關聯되고 있는 상태로서 生産要素의 生産別 配分, 財貨와 用役의 産業別 構成 또는 産業間의 聯關構造 등을 가리킨다. 一般的으로 産業構造는 ①國內消費와 投資로 構成되는 國內最終需要의 水準 및 그 構成 ②生産要素의 利用可能性과 그 相對價格 및 生産技術 ③商品과 生産要素 및 生産技術 등의 國際的 移動 등 3가지 與件에 의하여 規定되며 이러한 3가지 與件은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變化하게 된다. 따라서 經濟의 成長과 生産構造는 매우 밀접한 關係에 있을 뿐만 아니라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産業構造가 變化되어 經濟成長의 단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一定한 形態의 産業構造가 形成하게 된다(이에 대한 研究로서 다음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1962~1981年의 産業別 GNP 構成比와 就業者 構成比

<表-1> (單位: %)

區分 年度	産業別 GNP ¹⁾			産業別 就業者		
	農林·漁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農林·漁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1962	36.6	16.2	47.1	-	-	-
1963	43.1	16.2	40.7	63.1	8.7	28.2
1964	46.5	17.2	36.3	61.9	8.8	29.3
1965	37.6	19.9	42.5	58.6	10.3	31.0
1966	34.4	20.2	45.4	57.9	10.8	31.3
1967	30.1	20.6	49.3	55.2	12.8	32.0
1968	28.3	21.3	50.4	52.4	14.0	33.6
1969	27.6	21.5	50.9	51.3	14.3	34.4
1970	26.8	22.3	50.9	50.4	14.3	35.2
1971	27.0	22.4	50.6	48.4	14.2	37.4
1972	26.4	23.4	50.2	50.6	14.2	35.2
1973	25.0	26.0	49.0	50.0	16.3	33.7
1974	24.8	27.3	47.9	48.2	17.8	34.0
1975	24.9	28.0	47.1	45.9	19.1	35.0
1976	23.8	28.8	47.4	44.6	21.8	33.5
1977	23.0	28.4	48.6	41.8	22.4	35.8
1978	21.9	28.4	49.7	38.4	23.2	38.4
1979	20.5	28.0	51.5	35.8	23.7	40.5
1980	16.3	30.2	53.5	34.0	22.6	43.4
1981	17.9	31.0	51.1	34.2	21.3	44.5

註: 1) 經常價格 基準

資料: 韓國 銀行, 經濟企劃院

1. W. Pettg, C. Clack, S. Kuznets 그리고 H. B. Chenery 등은 1人當 國民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1次産業의 比重은 減少하고 2次, 3次産業의 比重은 增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W. G. Hoffman은 工業化가 進行됨에 따라 消費財 産業의 比重은 減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추어 볼때 韓國經濟는 輸出主導型 工業化 및 重化學 工業化 戰略을 통하여 先進國型 産業構造를 추구한 결과 過去 20年間 年平均 10%에 가까운 경이적인 高度成長을 이룩

1963~1981年의 産業別 就業者 構成比에 대한 産業別 GNP 構成比 比率

<表-2>

年度	區分	農林·漁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1963		0.68	1.86	1.44
1964		0.75	1.95	1.24
1965		0.64	1.93	1.37
1966		0.59	1.87	1.45
1967		0.55	1.61	1.54
1968		0.54	1.52	1.50
1969		0.54	1.50	1.48
1970		0.53	1.56	1.45
1971		0.56	1.58	1.35
1972		0.52	1.65	1.43
1973		0.50	1.60	1.45
1974		0.51	1.53	1.41
1975		0.54	1.47	1.35
1976		0.53	1.32	1.41
1977		0.55	1.27	1.36
1978		0.57	1.22	1.29
1979		0.57	1.18	1.27
1980		0.48	1.34	1.23
1981		0.52	1.46	1.15

資料: <表-1>로부터 도출한 것임.

1963~1981年의 産業別 就業者 構成比에 대한 産業別 GNP 構成比의 年平均 比率

<表-3>

區分	年度	1963~ 1966	1967~ 1971	1972~ 1976	1977~ 1981	1963~ 1981
農林·漁業		0.67	0.54	0.52	0.54	0.56
鑛工業		1.90	1.55	1.51	1.29	1.54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1.38	1.46	1.41	1.26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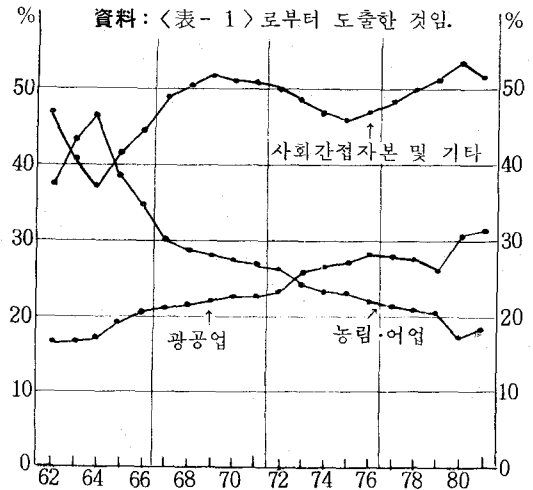
資料: <表-1>로부터 도출한 것임.

하여 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産業別 GNP 構成比와 産業別 就業者構成比, 産業別 成長率과 産業別 經濟成長 寄與率 그리고 産業別 産業聯關構造의 3가지 側面에서 그리고 工業構造別 GNP 構成比와 工業構造別 産業聯關構造의 2가지 側面에서 韓國經濟의 産業構造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産業別 GNP 構成比 및 就業者構成比

1962年~1981年의 産業別 GNP 構成比와 産業別 就業者構成比의 側面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주요한 特徵을 발견할 수 있다. (<表-1>, <表-2>, <表-3>, <그림-1> 參照.)

① 産業別 GNP 構成比를 살펴보면 農林·漁業의 比重은 1964年에 46.5%에서 점차로 낮아져서 1981년에는 17.9%에 이르렀고 鑛工業의 比重은 1962年에 16.2%로서 점차로 높아져 1981년에는 31.0%에 이르렀으며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의 比重은 1967年 이후 50%内外의 水準을 維持하면서 조금씩 變動하고 있다. 1963年과 1964年을 除外하면 恒常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의 比重이 50%의 水準으로 가장 높았으며 1972年까지는 農林·漁業의 比重이 鑛工業의 比重보다 높았으나 1973年 以後에는 鑛



<그림-1> 1962~1981年의 産業別 GNP 構成比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健實化를 위한 政策方向

工業의 比重이 農林·漁業의 比重보다 높았다.

② 産業別 就業者 構成比를 보면 農林·漁業의 比重은 1963년에 63.1%에서 점차로 낮아져서 1981년에는 34.2%에 이르렀고 鑛工業의 比重은 1963년에 8.7%에서 점차로 높아져서 1979년에는 23.7%에 이르렀다가 1981년에는 21.3%로 다소 낮아졌으며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의 比重은 1962년에 28.2%에서 다소 變動은 있었으나 점차로 높아져서 1981년에는 44.5%에 이르렀다. 鑛工業의 比重은 恒常 가장 낮았으며 1978年을 轉換點으로 하여 그 以前에는 農林·漁業의 比重이 가장 높았으나 그 以後에는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의 比重이 가장 높았다. 즉 1981年 現在 産業別 就業者 構成比는 産業別 GNP 構成比와는 달리 農林·漁業의 比重이 鑛工業의 比重보다 높다는 事實을 留意해야 한다.

③ 産業別 就業者 構成比에 대한 産業別 GNP 構成比의 比率를 살펴보면 農林·漁業의 경우에는 1963~1981년에 年平均 0.56, 鑛工業의 경우에는 年平均 1.54,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의 경우에는 1.38로 鑛工業이 가장 높았고 農林·漁業이 가장 낮았는데 鑛工業이 農林·漁業의 約 2.8 倍에 달하고 있다. 同比率를 經濟計劃期間別로 보면 農林·漁業의 경우에는 一次計劃期間(1962年除外)에 0.67, 二次計劃期間에 0.54, 三次計劃期間에 0.52, 그리고 四次計劃期間에 0.54로 三次計劃期間까지는 점차로 낮아졌다가 四次計劃期間에 다소 높아졌고 鑛工業의 경우에는 各各 1.90, 1.55, 1.51 그리고 1.29로 점차로 낮아졌으며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의 경우에는 各各 1.38, 1.46, 1.41 그리고 1.26으로 二次計劃期間까지는 높아졌다가 그 以後로 낮아졌다. 1981年 現在 同比率는 農林·漁業의 경우에는 0.52,

1962~1981年의 産業別 成長率과 産業別 經濟成長 寄與率

<表-4>

(單位: %)

區分 年度	經濟 成長率	産業別 成長率			産業別 經濟成長 寄與率			計
		農林·漁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農林·漁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1962	2.2	-6.0	13.4	8.6	-127.3	60.4	166.9	100.0
1963	9.1	9.5	14.2	7.5	45.4	17.2	37.4	100.0
1964	9.6	15.6	10.5	3.5	71.0	12.7	16.3	100.0
1965	5.8	-1.0	18.3	9.7	-7.6	36.8	70.8	100.0
1966	12.7	11.6	15.3	13.0	39.1	15.8	45.1	100.0
1967	6.6	-5.9	20.2	14.6	-37.8	40.7	97.1	100.0
1968	11.3	1.3	23.4	15.3	4.4	31.4	64.2	100.0
1969	13.8	10.5	19.2	14.2	26.0	23.4	50.6	100.0
1970	7.6	-1.4	19.6	9.5	-6.1	45.1	61.0	100.0
1971	9.4	3.7	17.3	9.8	12.0	35.9	52.1	100.0
1972	5.8	2.0	12.9	5.0	10.0	46.5	43.5	100.0
1973	14.9	6.3	28.6	13.6	11.7	42.7	45.6	100.0
1974	8.0	6.7	15.2	5.1	21.5	47.4	31.1	100.0
1975	7.1	5.3	12.6	5.1	18.7	46.9	34.4	100.0
1976	15.1	10.7	21.5	13.7	17.6	39.8	42.6	100.0
1977	10.3	2.1	14.3	11.9	4.9	41.1	54.0	100.0
1978	11.6	-4.0	20.0	13.5	7.5	52.6	54.9	100.0
1979	6.4	6.7	9.4	4.1	20.2	48.5	31.3	100.0
1980	-6.2	-22.0	-1.2	-2.2	-67.8	-6.1	-26.1	-100.0
1981	6.4	23.0	7.0	0.6	55.1	40.1	4.8	100.0

資料: 韓國銀行, 經濟企劃院

1962~1981年의 年平均 産業別 成長率

<表-5> (單位: %)

區分	年度	1962~1966	1967~1971	1972~1976	1977~1981	1962~1981
經濟成長率		7.8	9.7	10.1	5.5	8.3
産業別成長率	農林·漁業	5.6	1.5	6.2	0.1	3.3
	鑛工業	14.3	19.9	18.0	9.7	15.4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8.4	12.7	8.4	5.4	8.7

資料: <表-4>로부터 도출한 것임.

1962~1981年의 年平均 産業別 經濟成長 寄與率

<表-6> (單位: %)

區分	年度	1962~1966	1967~1971	1972~1976	1977 ¹⁾ ~1981	1962 ¹⁾ ~1981
農林·漁業		4.1	-0.3	15.9	18.2	9.0
鑛工業		28.6	35.3	44.7	45.6	38.2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67.3	65.0	39.4	36.2	52.8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1980年을 除外한 것임.

資料: <表-4>로부터 도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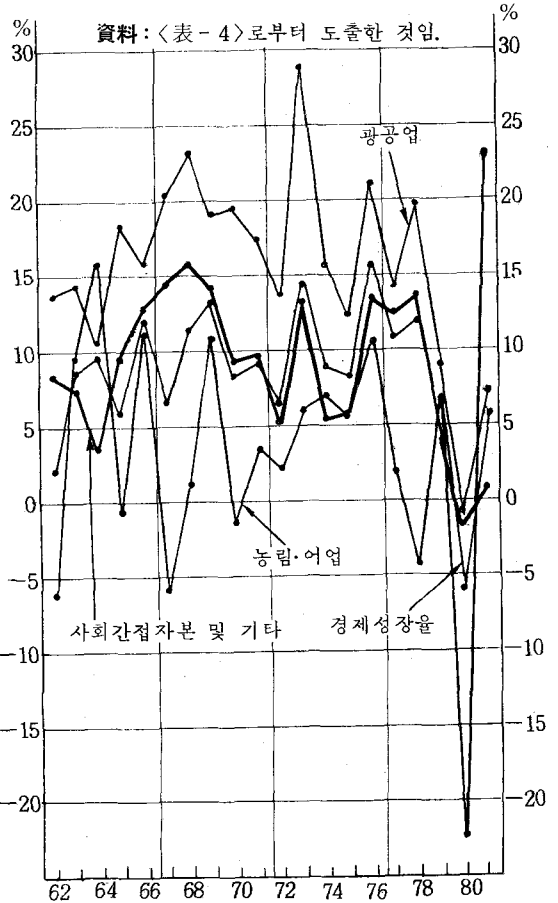
鑛工業의 경우에는 1.46, 그리고 社會間接資本의 경우에는 1.15이다.

2) 産業別 成長率 및 經濟成長 寄與率

1962~1981年의 産業別 成長率과 産業別 經濟成長 寄與率의 側面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주요한 特徵을 발견할 수 있다.

(<表-4>, <表-5>, <表-6>, <그림-2>參照).

① 産業別 成長率을 살펴보면 1962~1981年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8.3%인데 年平均 農林·漁業의 成長率은 3.3%, 年平均 鑛工業의 成長率은 15.4% 그리고 年平均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의 成長率은 8.7%로 鑛工業의 成長率이 가장 높았고 農林·漁業의 成長率이 가장 낮았다. 특히 農林·漁業의 成長率은 經濟成長率의 水準을 크게 下廻하고 있다. 年平均 産業別 成長率을 經濟計劃期間別로 보면 農林·漁業이 一次計劃期間에 5.6%, 二次計劃期間에 1.5%, 三次計劃期間에 6.2% 그리고 四次計劃期間에 0.1% 였고



<그림-2> 1962~1981年의 産業別 成長率

鑛工業이 各各 14.3%, 19.9%, 18.0% 그리고 9.7%였으며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가 各各 8.4%, 12.7%, 8.4% 그리고 8.7%였다. 여기서 年度別 農林·漁業의 成長率을 보면 매우 不安定함을 알 수 있다.

② 産業別 經濟成長 寄與率을 살펴보면 1962~1981年 年平均 農林·漁業의 經濟成長 寄與率은 9.0%, 年平均 鑛工業의 經濟成長 寄與率은 38.2% 그리고 年平均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의 經濟성장 寄與率은 52.8%로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의 寄與率이 가장 높았고, 農林·漁業의 寄與率이 가장 낮았다.

年平均 産業別 經濟成長寄與率을 經濟計劃期間別로 살펴보면 農林·漁業의 경우에는 一次計劃期間에 4.1%, 二次計劃期間에 -0.3%, 三次計劃期間에 15.9%, 그리고 四次計劃期間에 18.2%

였고 鑛工業의 경우에는 各各 28.6%, 35.3%, 44.7% 그리고 45.6% 였으며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의 경우에는 各各 67.3%, 65.0%, 39.4% 그리고 36.2%였다. 즉 鑛工業의 經濟成長寄與率은 점차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二次計劃期間까지는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部門이 經濟成長을 主導하였으나 三次計劃期間부터는 鑛工業의 經濟成長寄與率이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의 經濟成長寄與率을 앞서기 始作하여 두 部門이 함께 經濟成長을 主導하였다. 反面에 農林·漁業의 經濟成長 寄與率은 대체로 낮을 뿐만 아니라 매우 不安定함을 알 수 있다.

3) 産業別 聯關構造

1980年을 중심으로 産業別 聯關構造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주요한 特徵을 발견할 수 있다. (<表-7>參照).

① 國內生産은 農林·漁業 8.3%, 鑛業 0.8%, 製造業 51.0%, 其他産業 38.1%(建設業 8.0%, 商業 7.1%) 그리고 其他 1.8%로 構成되어 있다. 이것을 日本의 1975年 資料와 比較해 보면 農林·漁業과 鑛業 및 製造業의 比重은 높은 편이고 其他産業의 比重은 낮은 편이다. 즉 韓國은 製造業의 比重이 其他産業의 比重보다 현저히 높은 狀態이므로 아직도 産業構造가 三次産業의 比重이 높아짐으로써 高度化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輸出商品은 農林·漁業製品 3.5%, 鑛業製品 0.3%, 製造業製品 73.5%, 그리고 其他商品 22.7%로 構成되어 있다. 이것을 國內生産의 構成比와 比較해 볼 때 製造業製品의 比重만이 22.5%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日本의 1975年 資料와 比較해 보면 農林·漁業製品과 鑛業製品 및 其他商品의 比重은 높은 편이고 製造業製品의 比重은 낮은 편이다. 즉 日本에 비해서 國內産業에서 製造業이 차지하는 比重은 높지만, 輸出商品에서 製造業製品이 차지하는 比重이 낮음을 알 수 있다.

③ 輸入商品은 農林·漁業製品 11.3%, 鑛業製品 24.8%, 製造業製品 58.3% 그리고 其他商品

5.6%로 構成되어 있다. 이것을 國內生産의 産業別 構成比와 比較해 볼 때 農林·漁業製品, 특히 鑛業製品의 比重이 현저하게 높은 편이고 製造業製品의 比重은 조금 낮으며 其他商品의 比重은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그리고 이것을 輸出商品의 構成比와 比較해 볼 때 農林·漁業製品 특히 鑛業製品의 比重이 현저하게 높은 편이고 製造業製品과 其他商品의 比重은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것을 日本의 1975年 資料와 比較해 보면 오히려 農林·漁業製品, 특히 鑛工業製品의 比重은 낮은 편이고 製造業製品의 比重은 높은 편이다. 즉 韓國은 賦存資源의 貧弱함을 고려해 볼 때 輸入商品에서 製造業製品이 차지하는 比重이 아직도 높음을 알 수 있다.

④ 어떤 産業의 國産品에 대한 最終需要가 1單位 增加할 때 全産業에서 誘發되는 ① 國內生産額의 크기를 나타내는 産業別 生産誘發係數 ② 附加價值額의 크기를 나타내는 産業別 附加價值誘發係數 ③ 輸入額의 크기를 나타내는 産業別 輸入誘發係數를 보면 全産業은 各各 1.86, 0.74 그리고 0.11이었으며 製造業은 各各 2.00, 0.62, 그리고 0.38이었다. 즉 農林·漁業과 鑛業은 生産誘發係數는 낮으나 附加價值誘發係數가 높고 (輸入誘發係數가 낮고) 製造業은 生産誘發係數는 높지만 附加價值誘發係數는 낮다. (輸入誘發係數가 높다). 其他 産業中에서는 建設業과 電力·가스 및 水道部門이 生産誘發係數는 높지만 附加價值誘發係數는 낮게 (輸入誘發係數는 높게) 나타났으며 商業과 金融, 保險 및 不動産 그리고 其他 서어비스部門이 生産誘發係數는 낮지만 附加價值誘發係數는 높게 (輸入誘發係數는 낮게) 나타났으며 運輸, 保管 및 通信과 政府서어비스部門은 生産誘發係數도 낮고 附加價值誘發係數도 낮게 (輸入誘發係數는 높게) 나타났다.

⑤ 어떤 産業에 대한 1單位의 最終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한 全産業의 供給額을 全産業의 平均値로 나눈 比率인 産業別 影響力 係數와 全産業에 대한 1單位씩의 最終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한 어떤 産業의 供給額을 全産業의 平均値로 나눈 比率인 産業別 感應度 係數(影響力 係數는

1980 年の産業別産業聯關構造 (日本은 1975 年 資料)

<表-7>

國內生産斗 構成比	韓國 %	日本 %	農 漁 業	鑛 業	製 造 業	其 他						計	其 他	全 産 業		
						建設業	電力, 가스 및 수도	商 業	運輸, 보관 및 통신	金融, 보험 및 不動産	政 府				其 他 서비스	
輸出品斗 構成比	韓國 %	日本 %	8.3	0.8	51.0	8.0	2.2	7.1	5.9	4.6	3.6	6.7	38.1	1.8	100.0	
輸入商品斗 構成比	韓國 %	日本 %	3.8	0.4	42.3	10.1	2.0	8.9	6.8	7.9	2.5	11.3	49.5	4.0	100.0	
生産誘發 係數	韓國	日本	3.5	0.3	73.5	22.7										100.0
附加價値誘發 係數	韓國	日本	0.2	0.1	78.7	21.0										100.0
輸入誘發 係數	韓國	日本	11.3	24.8	58.3	5.6										100.0
影響力 係數	韓國	日本	14.5	41.5	31.5	12.5										100.0
感應度 係數	韓國	日本	1.48	1.55	2.00	2.06	1.86	1.50	1.56	1.42	1.63	1.65	-	-	1.86	
中間需要比	韓國	日本	0.90	0.89	0.62	0.77	0.68	0.90	0.70	0.95	0.73	0.87	-	-	0.74	
中間投入比	韓國	日本	0.10	0.11	0.38	0.23	0.32	0.10	0.30	0.05	0.27	0.13	-	-	0.26	
輸入依存度	韓國	日本	0.66	0.70	1.34	1.03	0.99	0.69	0.88	0.60	0.92	0.75	-	-	1.00	
附加價値率	韓國	日本	1.42	1.59	3.13	0.51	0.82	0.97	0.76	0.89	0.39	0.77	-	-	1.00	
輸出率	韓國	日本	72.9	99.7	55.0	9.8	81.4	42.7	36.8	57.1	1.3	25.4	31.8	92.8	51.4	
輸入係數	韓國	日本	77.2	101.5	63.3	7.3	68.6	42.7	36.8	47.7	0.0	32.2	35.3	91.3	51.0	
貨稼得率	韓國	日本	30.2	31.4	77.2	59.1	57.6	31.6	49.2	24.0	49.5	36.0	43.1	99.6	60.4	
自給自足度	韓國	日本	39.2	49.3	71.3	59.2	50.6	30.7	59.9	23.0	30.5	38.1	45.4	95.3	55.4	
輸出率	韓國	日本	2.2	0.6	22.7	3.8	5.2	2.3	16.5	0.7	16.3	1.7	6.0	10.9	14.2	
輸入係數	韓國	日本	1.4	0.9	9.7	0.9	13.4	1.2	5.1	0.3	1.2	1.2	1.6	3.1	5.3	
貨稼得率	韓國	日本	69.8	68.6	22.8	40.9	42.4	68.4	50.8	76.0	50.5	64.0	56.9	0.4	39.6	
自給自足度	韓國	日本	5.6	5.5	19.2	7.6										13.3
輸出率	韓國	日本	0.4	0.8	11.0	1.2										5.9
輸入係數	韓國	日本	19.1	84.5	16.5	-	-	-	-	-	-	-	-	-	14.8	
貨稼得率	韓國	日本	18.7	85.0	4.4	-	-	-	-	-	-	-	-	-	5.9	
自給自足度	韓國	日本	90.1	88.8	62.3	76.8	78.1	89.6	70.0	94.7	-	81.3	-	-	61.8	
輸出率	韓國	日本	82.2	14.3	96.5	-	-	-	-	-	-	-	103.6	-	94.8	

資料: 韓國銀行, 1980 年度産業聯關分析

後方聯關效果를 나타내는 指標로, 感應度係數는 前方聯關效果를 나타내는 指標로 利用되고 있다.) 를 보면 農林·漁業은 各各 0.66 과 1.42, 鑛業은 各各 0.70 과 1.59 그리고 製造業은 1.34 와 3.13 으로 製造業의 影響力 係數와 感應度 係數가 모두 農林·漁業이나 鑛業보다 約 2倍程度 높다. 其他産業의 影響力 係數와 感應度 係數를 보면 建設業의 影響力 係數가 1.03 으로 1보다 높은 것을 除外하면 모두 1보다 낮다.

⑥ 어떤 産業에 대한 中間需要額을 그 産業에 대한 總需要額으로 나눈 %比率인 産業別 中間需要比와 어떤 産業의 中間財投入額을 그 産業의 總投入額으로 나눈 %比率인 産業別 中間投入比를 보면 全産業은 各各 51.4%와 60.4%이었으며(中間需要比는 前方聯關效果를 나타내며 中間投入比는 後方聯關效果를 나타낸다. (A. 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1956)) 農林·漁業은 各各 72.9%와 30.2%, 鑛業은 各各 55.0%와 77.2%로, 中間需要比는 鑛業, 農林·漁業, 製造業의 順序로 높았지만 中間投入比는 製造業, 鑛業, 農林·漁業의 順序로 높았다. 其他産業의 경우 中間需要比는 31.8%로 가장 낮았으며 中間投入比는 43.1%로 農林·漁業과 鑛業보다 약간 높은 편이며 그 중 中間需要比와 中間投入比가 모두 높은 部門은 電力, 가스 및 水道部門으로 各各 68.6%와 57.6%이다. 이것을 日本의 1975年 資料와 比較해 볼 때 全産業의 경우 中間需要比는 거의 비슷한 水準이며 中間投入比는 약간 높은 편이다. 그리고 農林·漁業과 鑛工業 및 其他産業의 경우에는 中間需要比와 中間投入比가 모두 낮은 편이지만 製造業의 경우에는 中間需要比는 낮으나 中間投入比는 높은 편이다.

⑦ 어떤 産業의 輸入中間財 投入額을 그 産業의 總投入額으로 나눈 %比率인 産業別 輸入依存度를 보면 全産業의 경우 14.2%로 中間投入比의 23.5%에 해당된다. 이것을 日本의 1975年의 中間投入比에 대한 輸入依存度の %比率인 9.6%와 比較해 볼 때 상당히 높은 水準임을 알 수 있다. 農林·漁業과 鑛業 및 其他産業의 輸入依存度は 各各 2.2%와 0.6% 및 6.0%

로 낮은 편인데 製造業의 輸入依存度は 22.7%로 현저하게 높은 水準이다. 특히 製造業의 경우 中間投入比에 대한 輸入依存度の %比率은 29.4%로 日本의 1975年의 同比率인 13.6%보다 2倍以上 높은 水準이다. 其他産業의 輸入依存度は 6.0%인데 그 중에서 運輸, 保管 및 通信과 政府서어비스部門이 各各 16.5%와 16.3%로 높은 水準이다.

⑧ 어떤 産業의 附加價值額을 그 産業의 總投入額으로 나눈 %比率인 産業別 附加價值率(100%-中間投入比)를 보면 全産業은 39.6%이고 中間投入比와는 反對로 農林·漁業과 鑛業 및 其他産業이 各各 69.8%와 68.6% 및 56.9%로 높은 편이며 製造業이 22.8%로 낮은 편이다. 其他産業中에서는 商業과 金融, 保險 및 不動産 그리고 其他 서어비스部門이 各各 68.4%와 76.0% 그리고 64.0%로 높은 편이다.

⑨ 어떤 産業의 輸出額을 그 産業의 國內生産額으로 나눈 %比率인 産業別 輸出率을 보면 全産業이 13.3%이며 農林·漁業과 鑛業 및 其他部門이 各各 5.6%와 5.5% 및 7.6%로 낮으며 製造業이 19.2%로 높다. 이것을 日本의 1975年 資料와 比較해 보면 全般的으로 輸出率이 높은 편인데 製造業의 輸出率은 相對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⑩ 어떤 産業의 輸入額을 그 産業의 總供給額으로 나눈 %比率인 産業別 輸入係數를 보면 全産業이 14.8%로 輸出率보다는 높음을 알 수 있다. 輸入係數는 輸出率과는 달리 農林·漁業과 製造業이 各各 19.1%와 16.5%로 낮은 反面에 鑛業이 84.5%로 현저하게 높은 水準이다. 그리고 農林·漁業과 鑛業의 경우에는 輸入係數가 輸出率보다 높게 나타났고 製造業의 경우에는 輸入係數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것을 日本의 1975年 資料와 比較해 보면 全般的으로 輸入係數가 높은 편인데 鑛業은 오히려 약간 낮은 편이며 製造業은 특히 높은 편이다.

⑪ 어떤 産業의 輸出額에서 그 産業의 輸出의 輸入誘發額을 控除한 外貨稼得額을 그 産業의 輸出額으로 나눈 %比率인 外貨稼得率을 보면 全産業이 61.8% 낮은 水準에 머물어 있으며

輸入誘發係수가 낮은 農林·漁業과 鑛業은 各各 90.1%와 88.8%로 높은 水準이지만 輸入誘發係수가 높은 製造業은 62.3%로 낮은 水準이다. 其他産業의 外貨稼得率은 全般的으로 全産業보다 높은 편이며 특히 金融, 保險 및 不動産은 94.7%이다.

⑫ 自給自足도를 보면 全産業은 前述한 바와 같이 94.8%인데 農林·漁業은 82.2%이고 鑛業은 14.3%로 가장 낮은 水準이며 製造業은 96.5% 그리고 其他産業은 103.6%였다. 其他産業만을 除外하면 모두 自給自足도가 100.0%에 未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工業構造別 GNP 構成比

한편 産業構造중 가장 중요한 工業構造를 工業部門別 GNP 構成比의 측면에서 그리고 1960年, 1965年, 1970年, 1975年, 1980年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주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表-8> 參照)

① 全體 GNP에 대한 製造業의 GNP의 %比率인 工業化率을 보면 1960년에 8.4%에서 점차 높아져서 1980년에는 34.2%에 달하였다.

② 製造業의 GNP에서 重化學工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1965년에 33.0%에서 점차 높아져서 1980년에는 53.2%가 되었고 輕工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1965년에 67.0%에서 점차 낮아져서 1980년에는 46.8%가 되었다. <表-8>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977年以後부터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輕工業의 比重보다 높아짐으로써 工業構造의 高度化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③ 製造業의 GNP에서 消費財工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1960년에 74.2%, 1965년에 60.0%, 1970년에 52.1%, 1975년에 46.9% 그리고 1980년에 40.4%로 점차 낮아졌으며

1960, 1965, 1970, 1975, 1980年의 工業部門別 GNP 構成比(日本은 1977年 資料)

<表-8>

(單位: %)

區分	年度	1960	1965	1970	1975	1980	日本
工業化學		8.4	11.1	17.9	26.9	34.2	-
重化學工業		-	33.0	41.8	46.4	53.2	-
輕工業		-	67.0	58.2	53.6	46.8	-
計		-	100.0	100.0	100.0	100.0	-
消費財工業		74.2	60.0	52.1	46.9	40.4	31.6
中間財工業		18.4	29.8	37.8	36.9	38.4	25.0
資本財工業		7.4	10.2	10.1	16.2	21.2	43.4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素材型工業	勞動集約型	5.4	4.3	3.7	3.4	3.3	-
	資本集約型	9.0	19.6	28.8	27.0	27.9	-
	計	14.4	23.9	32.5	30.4	31.2	-
低加工工業	勞動集約型	38.7	31.2	25.2	24.5	20.8	-
	資本集約型	25.2	22.0	20.1	16.4	15.2	-
	計	63.9	53.2	45.3	40.9	36.0	-
高加工工業	勞動集約型	16.1	14.5	13.4	14.0	13.1	-
	資本集約型	5.6	8.4	8.8	14.7	19.7	-
	計	21.7	22.9	22.2	28.7	32.8	-
合計		100.0	100.0	100.0	100.0	100.0	-

註: 1) 1975年 不變市場 價格 基準, 2) 工業化率 = $\frac{\text{製造業의 GNP}}{\text{全體 GNP}} \times 100$

資料: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中間財工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各各 18.4%, 29.8%, 37.8%, 36.9%, 그리고 38.4%로 점차 높아졌으며 資本財工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도 各各 7.4%, 10.2%, 10.1%, 16.2% 그리고 21.2%로 역시 점차 높아졌다. 1980年 現在까지도 中間財의 比重이 消費財의 比重과 비슷한 水準으로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消費財의 比重이 가장 높으며 資本財의 比重은 消費財 比重의 절반 水準에 머물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을 日本의 1977年 資料와 比較해 보면 消費財와 中間財의 比重은 높은 편이며 資本財의 比重은 현저하게 낮아서 日本의 절반 水準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④ 製造業의 GNP에서 素材型 工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1960년에 14.4%, 1965년에 23.9%, 1970년에 32.5%, 1975년에 30.4% 그리고 1980년에 31.2%로 점차 높아져서 1970년부터 30.0%를 약간 上廻하는 水準에 머물러 있으며 低加工型 工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各各 63.9%, 53.2%, 45.3%, 40.9% 그리고 36.0%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高加工型 工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各各 21.7%, 22.9%, 22.2%, 28.7% 그리고 32.8%로 1970年까지는 거의 變動이 없다가 1975년부터는 높아졌다. 1980年 現在에도 比重自體는 낮아졌지만 1960年代와 같이 여전히 低加工型 工業의 比重이 가장 높은 水準에 있으며 다음으로 高加工型 工業의 比重이 素材型 工業의 比重보다 높아지기 始作했다. 素材型 工業의 比重은 1970年代 以後 거의 一定한 水準에 머물어 있는 반면 低加工型 工業의 比重은 낮아지고 있으며 高加工型 工業의 比重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高加工型 工業의 比重이 가장 높아지고 低加工型 工業의 比重이 가장 낮아질 可能性이 짙다. 1980年 現在 素材型 工業은 勞動集約型 工業 3.3%와 資本集約型 工業 27.9%, 低加工型 工業은 各各 20.8%와 15.2% 그리고 高加工型 工業은 各各 13.1%와 19.7%로 構成되어 있다.

5) 工業構造別 聯關構造

工業部門別 産業聯關構造를 1980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表-9〉參照) 다음과 같이 12가지의 주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① 製造業의 國內生産은 輕工業 48.4%와 重化學工業 51.6%로 構成되어 있다. 좀더 자세하게 보면 化學製品이 24.7%, 食料品 및 煙草가 21.1%,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가 16.9% 그리고 纖維, 衣服 및 皮革이 16.5%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日本의 1975年 資料와 比較해 보면 아직도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낮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의 比重이 낮아서 日本의 절반 水準에 있다. 反面에 食飲料品 및 煙草, 衣服 및 皮革 그리고 化學製品의 比重은 높은 편이다.

② 製造業의 輸出商品은 輕工業 47.9%와 重化學工業 52.1%로 構成되어 있다. 좀더 자세하게 보면 纖維, 衣服 및 皮革이 32.5% 그리고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가 27.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反面에 食飲料品 및 煙草가 3.5%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製造業의 國內生産의 構成比와 比較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약간 높게 그리고 食飲料品 및 煙草의 比重은 현저하게 낮으나 纖維, 衣服 및 皮革과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의 比重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을 日本의 1975年 資料와 比較해 보면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製造業의 國內生産에서의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낮은 것보다 더 현저하게 낮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의 比重이 더욱 낮은 수준이다. 즉 韓國에서는 輕工業의 纖維, 衣服 및 皮革과 重化學工業의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의 두 部門이 製造業 輸出의 半 以上을 차지하고 있지만 日本에서는 重化學工業의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 한 部門이 그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日本에서는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輸出이 이루어지고 있는 反面에 韓國에서는 아직도 重化學工業의 輸出이 부진함을 알 수 있다.

③ 製造業의 輸入商品은 輕工業 18.9%와 重化學工業 81.1%로 構成되어 있다. 壓倒的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重化學工業 중에서

1980年의 工業部門別 産業聯關構造(日本은 1975年 資料)

<表-9>

國內生產의 構成比	輕		業										重 化 學 工 業				全 製造業			
	韓國 %	日本 %	食飲料品 及 煙草		纖維, 衣服 及 皮革		製材, 木製 品及家具		印刷, 出版		非金屬 礦物製品		其 他 製 造 業		計	化學製品		第一 次 屬 金	金屬製品 機械及 計可	計
			及	及	及	及	及	及	及	及	及	及								
輸出商品의 構成比	韓國 %	日本 %	21.1	16.5	2.0	3.1	3.7	2.0	48.4	24.7	10.0	16.9	51.6	100.0						
輸入商品의 構成比	韓國 %	日本 %	13.2	6.9	3.8	5.9	3.3	3.1	36.2	15.3	15.6	32.9	63.8	100.0						
生產誘發係數	韓國	日本	3.5	32.5	3.0	1.0	2.6	5.3	47.9	13.5	11.0	27.6	52.1	100.0						
附加價值誘發係數	韓國	日本	1.3	5.3	0.3	0.9	1.5	1.9	11.2	11.4	19.7	57.7	88.8	100.0						
輸入誘發係數	韓國	日本	8.8	5.0	0.3	2.9	1.0	0.9	18.9	22.1	11.8	47.2	81.8	100.0						
影響力係數	韓國	日本	24.1	8.6	4.1	2.9	0.6	3.2	43.5	22.5	10.8	23.2	56.5	100.0						
感應度係數	韓國	日本	2.09	2.22	1.51	2.08	2.14	-	2.13	1.62	2.46	2.00	1.86	2.00						
中間需要比	韓國	日本	0.80	0.61	0.34	0.65	0.71	-	0.71	0.42	0.50	0.60	0.50	0.62						
中間投入比	韓國	日本	0.20	0.39	0.66	0.35	0.29	-	0.29	0.58	0.50	0.40	0.50	0.38						
輸入依存度	韓國	日本	0.98	1.21	1.04	1.18	1.09	-	1.20	1.09	1.54	1.25	1.30	1.34						
附加價值率	韓國	日本	0.90	0.89	0.53	0.95	0.61	-	1.51	2.97	1.69	1.17	3.19	3.13						
輸出率	韓國	日本	25.1	42.6	66.6	82.8	85.8	26.3	41.3	80.9	84.7	39.2	65.5	55.0						
輸入係數	韓國	日本	31.4	46.1	85.1	89.1	93.0	63.4	57.1	84.3	86.7	48.9	66.8	63.3						
外貨稼得率	韓國	日本	77.3	76.9	84.7	72.8	69.7	67.8	76.2	79.1	86.5	71.7	78.1	77.2						
	韓國	日本	77.2	71.6	70.6	66.9	72.4	62.4	71.3	77.1	81.4	61.5	71.2	71.3						
	韓國	日本	10.2	15.0	53.2	16.5	5.7	9.4	13.7	42.2	20.2	21.1	31.1	22.7						
	韓國	日本	11.8	7.3	13.7	3.6	5.1	2.3	8.4	32.1	7.8	1.7	10.5	9.7						
	韓國	日本	22.7	23.1	15.3	27.2	30.3	32.2	23.8	20.9	13.5	28.3	21.9	22.8						
	韓國	日本	3.2	37.7	27.9	6.2	13.6	53.4	19.0	10.4	20.9	31.6	19.3	19.2						
	韓國	日本	1.2	8.6	0.8	1.9	5.1	7.1	3.4	8.2	14.0	19.4	15.3	11.0						
	韓國	日本	7.7	5.7	2.6	15.7	5.3	7.8	7.2	15.0	18.9	35.8	23.7	16.5						
	韓國	日本	7.7	5.4	4.9	2.2	0.8	4.4	5.2	6.2	3.1	3.1	3.9	4.4						
	韓國	日本	79.7	60.8	34.3	64.5	70.5	69.0	71.3	42.4	49.5	59.7	50.4	62.3						

註: <表-7>을 參考
資料: 韓國銀行

도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가 47.2%라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輕工業 中에서는 食飲料品 및 煙草가 8.8% 그리고 纖維, 衣服 및 皮革이 5.0%라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製造業의 國內生産의 構成比, 그리고 製造業의 輸出商品의 構成比와 比較해 보면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현저하게 높으면 그중에서도 특히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의 比重이 높은 反面에 製造業의 輸出商品 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輕工業의 纖維, 衣服 및 皮革의 比重은 현저하게 낮은 水準이다. 그리고 이것을 日本의 1975年 資料와 比較해 보면 製造業의 國內生産의 構成比 혹은 製造業의 輸出商品의 構成比와는 달리 輕工業의 比重, 그 중에서도 특히 食飲料品 및 煙草의 比重이 현저하게 낮고 重化學工業의 比重 그 中에서도 특히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의 比重이 높다. 또한 日本의 경우에는 製造業의 輸入商品中에서 重化學工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이 製造業의 輸出商品中에서 重化學工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보다 현저하게 낮은 反面에 韓國의 경우에는 이와 反對이다. 즉 韓國은 아직도 製造業의 輸入商品 中에서 重化學工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이 지나치게 높은 水準임을 알 수 있다.

④ 工業部門別 生産誘發係數, 附加價值誘發係數 그리고 輸入誘發係數를 보면 輕工業이 各各 1.86, 0.50 그리고 0.50이다. 즉 輕工業이 重化學工業보다 生産誘發係數도 높고 附加價值誘發係數도 높다(輸入誘發係數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輕工業中에서 纖維, 衣服 및 皮革은 生産誘發係數가 2.22로 輕工業中에서 가장 높지만 附加價值誘發係數는 0.61로 낮은 편에 속하고 食飲料品 및 煙草의 生産誘發係數는 2.09이고 附加價值誘發係數는 0.80으로 附加價值誘發係數가 製造業中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重化學工業中에서는 化學製品의 경우 生産誘發係數는 1.62, 附加價值誘發係數는 0.42로 重化學工業中에서 生産誘發係數와 附加價值誘發係數가 가장 낮고 第一次 金屬은 各各 2.46 그리고 0.50으로 生産誘發係數가 重化學工業中에서 가장 높으며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는 各各 2.00 그

리고 0.60으로 附加價值誘發係數가 重化學工業中에서 가장 높다.

⑤ 工業部門別 影響力係數와 感應度係數를 보면 輕工業은 各各 1.20과 1.51이고 重化學工業은 各各 1.30과 3.19로 重化學工業이 輕工業보다 모두 높다. 影響力係數가 높은 部門을 보면 輕工業中에서는 纖維, 衣服 및 皮革과 종이 및 인쇄, 出版이 各各 1.21과 1.18로 높고 重化學工業中에서는 第一次 金屬과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가 各各 1.54와 1.25로 높다. 그리고 感應度係數가 높은 部門을 보면 輕工業中에서는 종이 및 인쇄, 出版이 0.95로 높고 重化學工業中에서는 化學製品과 第一次 金屬이 各各 2.97과 1.69로 높다.

⑥ 工業部門別 中間需要比와 中間投入比를 보면 輕工業이 各各 41.3%와 76.2%이고 重化學工業이 各各 65.5%와 78.1%로 影響力係數 및 感應度係數와 마찬가지로 重化學工業이 모두 높다. 中間需要比를 자세히 보면 輕工業中에서 종이 및 인쇄, 出版과 非金屬鑛物製品이 各各 82.8%와 85.8%로 높고 食飲料品 및 煙草와 其他 製造業이 各各 25.1%와 26.3%로 낮으며 重化學工業中에는 化學製品과 第一次 金屬이 各各 80.9%와 84.7%로 높고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가 39.2%로 낮다. 그리고 中間投入比를 자세히 보면 輕工業中에서 製材, 木製品 및 家具가 84.7%로 높은 편이고 非金屬鑛物製品과 其他 製造業이 各各 69.7%와 67.8%로 낮은 편이며 重化學工業中에서는 第一次 金屬이 86.5%, 化學製品이 79.1% 그리고 金屬, 機械 및 裝備가 71.7%이다. 이것을 日本의 1975年 資料와 比較해 보면 全般的으로 中間需要比는 낮고 中間投入比는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中間需要比의 경우에는 輕工業, 그 중에서도 특히 其他製造業이 현저하게 낮은 편이고 重化學工業은 거의 비슷한 水準이지만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는 조금 낮은 편이다. 그리고 中間投入比의 경우에는 輕工業과 重化學工業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높은 편이다.

⑦ 工業部門別 輸入依存度를 보면 輕工業이 13.7%이고 重化學工業이 31.1%이며 中間投

入比에 대한 輸入依存度の 比率은 輕工業이 18.0%이고 重化學工業이 39.8%로 重化學工業의 輸入依存도가 輕工業보다 아주 높다. 輸入依存度を 보다 자세히 보면 食飲料品 및 煙草가 10.2%, 纖維, 衣服 및 皮革이 15.0%, 化學製品이 42.2%, 第一次 金屬이 20.2%, 그리고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가 21.1%이다. 이것을 日本의 1975年 資料와 비교해 보면 全般的으로 높은데 특히 重化學工業, 그 中에서도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의 輸入依存도가 현저하게 높다.

⑧ 工業部門別 附加價值率을 보면 輕工業이 23.8%이고 重化學工業이 21.9%로 輕工業이 약간 높다. 附加價值率은 中間投入財와 反對로 輕工業中에서는 非金屬礦物製品과 其他 製造業이 各各 30.3%와 32.2%로 높고 製材, 木製品 및 家具가 15.3%로 낮고 重化學工業中에서는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가 28.3%로 높고 第一次 金屬이 13.5%로 낮으며 化學製品은 20.9%로 그 中間에 位置하고 있다.

⑨ 工業部門別 輸出率은 輕工業이 19.0%이고 重化學工業이 19.3%로 두 部門이 거의 비슷한 水準이다. 輸出率이 높은 部門을 보면 其他 製造業이 53.4%, 纖維, 衣服 및 皮革이 37.7% 그리고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가 31.6%이고 輸出率이 낮은 部門을 보면 食飲料品 및 煙草가 3.2%, 종이 및 인쇄, 出版이 6.2% 그리고 化學製品이 10.4%이다. 이것을 日本의 1975年 資料와 비교해 보면 全般的으로 높은 편인데 특히 輕工業, 그 中에서도 纖維, 衣服 및 皮革, 製材, 木製品 및 家具 그리고 其他 製造業의 輸出率이 현저하게 높다. 즉 韓國은 아직도 日本에 비해 輕工業의 輸出은 높지만 重化學工業의 輸出率은 相對的으로 현저하게 낮은 狀態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⑩ 工業部門別 輸入係數를 보면 輕工業이 7.2%이고 重化學工業이 23.7%로 重化學工業의 輸入係數가 壓倒的으로 높다. 특히 輸入係數가 높은 部門을 보면 金屬製品, 機械 및 장비가 35.8%로 가장 높고 第一次 金屬이 18.9%로 그 다음으로 높다. 이것을 工業部門別 輸出比와 比較해 보면 輕工業, 특히 其他 製造業, 纖維, 衣

服 및 皮革 그리고 製材, 木製品 및 家具는 현저하게 낮고 重化學工業 특히 化學製品과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는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것을 日本의 1975年 資料와 比較해 보면 輕工業은 약간 높은 水準이지만 重化學工業은 壓倒的으로 높은 水準에 있다. 輸出率을 감안해 볼 때 輕工業의 輸入係數는 엄청나게 높은 편이다.

⑪ 工業部門別 外貨稼得率을 보면 輕工業은 71.3%이고 重化學工業은 50.4%로 輕工業의 外貨稼得率이 重化學工業보다 높다. 輸出商品中에서의 比重이 높은 部門의 外貨稼得率을 보면 纖維, 衣服 및 皮革이 60.8%,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가 59.7% 그리고 化學製品이 42.4%로 比較的 外貨稼得率이 낮은 편이다.

⑫ 自給自足도가 높은 部門과 自給自足도가 낮은 部門은 <表-10>과 같다.

3. 問題點 및 改善方向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現況을 5가지 즉 ① 産業別 GNP 構成比 및 就業者構成比 ② 産業別 成長率 및 經濟成長寄與率 ③ 産業別 聯關構造 ④ 工業構造別 GNP 構成比 ⑤ 工業構造別 産業聯關構造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上記의 分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外型的으로는 高度化되었으나 內部的으로는 매우 不健實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自立經濟基盤이 微弱하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賦存資源이 貧弱한 현실하에서 輸出을 통한 成長을 持續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原資材와 資本財의 도입이 불가피하였으나 지나친 外延的 및 海外依存的 成長戰略의 副作用으로서 産業需要가 확대될수록 輸入需要가 늘어나는 輸入誘發的 産業構造가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結論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들 수 있다.

① 全産業平均 輸入係數(=輸入÷總生産額), 輸入誘發係數(=最終需要項目別 輸入誘發額÷項目別最終需要額), 輸入依存度(=각 産業의 輸

1980 年의 自給自足도가 높은 部門과 自給自足도가 낮은 部門

<表-10>

(單位: %)

	높은 部門			낮은 部門			
	1970	1975	1980	1970	1975	1980	
1 織物	124.1	185.2	250.3	一般機械	20.6	25.8	36.4
2 纖維系	144.4	215.6	237.6	林産物	63.9	56.8	45.8
3 製革 및 革製品	104.6	175.6	223.5	製糖	42.7	44.5	46.9
4 고무製品	113.3	201.2	216.4	非鐵金屬塊 및 同一次製品	36.9	36.9	52.3
5 纖維製品	153.6	201.8	196.4	공예作物	78.3	79.4	64.0
6 其他製造業	188.4	207.8	194.9	精密機械	40.2	61.4	67.7
7 水産業	141.1	182.5	146.7	製鐵 및 製鋼	13.7	35.5	69.3
8 製材 및 木製品	130.3	151.5	135.1	基礎化學製品	23.7	46.2	70.0
9 金屬製品	55.5	100.6	134.2	電氣機械	59.1	68.9	76.3
10 水産加工	202.6	230.0	128.8	펄프 및 紙類	59.1	71.1	78.2
11 電子 및 通信機械	59.1	105.1	111.1	輸送用機械	53.5	64.2	78.4
12 化學肥料 및 農藥	88.6	53.8	108.8	石炭製品	87.6	83.2	83.2
13 鐵鋼一次製品	46.5	61.3	105.1	石油製品	98.1	85.3	87.5
14 合成수지 및 合成고무	58.3	141.1	103.3	製粉	89.0	92.0	97.2

資料: 韓國銀行

輸入係數, 輸入誘發係數, 輸入依存度, 外貨稼得率

<表-11>

	輸入係數			輸入誘發係數			輸入依存度			外貨稼得率		
	1970	1975	1980	1970	1975	1980	1970	1975	1980	1970	1975	1980
全産業平均	11.2 %	14.7 %	14.8 %	0.20	0.29	0.30	8.6 %	12.8 %	14.2 %	73.6 %	64.2 %	61.8 %
製造業(1980)	16.5 %			0.38 %			22.7 %			62.3 %		

資料: 韓國銀行, 1970 年度, 1975 年度, 1980 年度の 産業聯關分析

入中間材投入額 ÷ 國內總生産額) 가 上昇趨勢에 놓여 있는 反面에 外貨稼得率 (=어떤 産業의 輸出額에서 그 産業의 輸出의 輸入誘發額 즉 外貨稼得額 ÷ 그 産業의 輸出額)은 下落趨勢에 놓여 있다(<表-11> 參照). 그리고 1980 年度の 全産業平均 中間需要比와 中間投入比는 각각 51.4 %, 60.4 %로서 이 두 比率는 계속 上昇趨勢를 보여왔다.

1980 年度를 기준으로 國內生産의 構成비가 51.0 %, 輸出商品의 構成비가 73.5 %, 輸入商品의 構成비가 58.3 %, 輸出率이 19.2 %인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의 輸入係數는 16.5 %, 輸入誘發係數는 0.38, 輸入依存도가 22.7 %, 外貨稼得率이 62.3 %나 된다. (<表-11> 參照) 이 사실은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에서의 國內生産業體들이 國內生産業體와의 相互有機的 關係가 상

대적으로 약한 反面에 海外生産業體에 대한 依存關係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② 最終需要의 輸入誘發係數와 輸出의 輸入誘發係가 모두 上昇趨勢에 놓여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한 最終需要인 輸出의 輸入誘發係數가 높다(<表-12> 參照).

③ 製造業部門중에서 生産比重이 輕工業部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重化學工業部門이 素材型에서나 加工型에서 모두 높은 輸入誘發係數를 보이고 있다(<表-13> 參照).

④ 1980 年度에 全産業平均 輸入依存度는 14.2 %로 上昇趨勢에 놓여 있는바 특히 製造業部門의 輸入依存도가 22.7 %로 매우 높으며 製造業部門중에서도 重化學工業部門의 輸入依存도가 31.1 %로 제일 높다.

⑤ 1980 年度에 全産業平均 輸出率은 13.3 %

最終需要의 輸入誘發係數

<表-12>

	1970	1975	1980
最終需要의 輸入誘發係數	0.20	0.29	0.30
輸出의 輸入誘發係數	0.26	0.36	0.38

資料: 韓國銀行, 各年度의 産業聯關分析

重化學工業部門 및 輕工業部門의 輸入誘發係數

<表-13>

(1979年)

	素材型	加工型	計
輕工業部門의 輸入誘發係數(A)	0.40	0.27	0.32
重化學工業部門의 輸入誘發係數(B)	0.50	0.47	0.48
順位	A < B	A < B	A < B

資料: 韓國銀行

貿易收支赤字의 構造的 要因: 總供給과 總需要의 側面

<表-14>

(單位: %)

	1970	1975	1980
總供給에 대한 輸入의 比率	11.2	14.7	14.8
總需要에 대한 輸出의 比率	6.1	10.6	11.3
超過海外商品需要의 比率	5.1	4.1	3.5
自給自足度	86.7	90.3	94.8

資料: 韓國銀行

이며 輸入係數는 14.8%인데 이 두 比率는 모두 上昇趨勢에 놓여 있다. 그리고 全産業平均 輸入係數가 全産業平均 輸出率보다 항상 높아 왔었는데 이 결과 貿易收支赤字가 慢性化되어 왔다.

⑥ 1980年度에 鑛業部門과 農林·漁業部門에서는 輸入係數가 輸出率보다 높았으며 同年度 製造業部門에서는 輸出率이 輸入係數보다 높았다. 그리고 製造業部門에서도 輕工業은 輸入係數보다 높은 輸出率을 보였으나 重化學工業은 輸出率보다 높은 輸入係數를 보였다.

⑦ 重化學工業部門의 輸出率은 輕工業部門의 輸出率보다 약간 높으나 前者의 輸入係數는 後者의 輸入係數보다 무려 3배정도 높다.

⑧ 1980年度에 全産業平均 附加價値率은 39.6%인데 이 比率는 계속 下落趨勢에 놓여 있다. 특히 製造業部門의 附加價値率은 22.8%로서 낮

은 반면에 農林·漁業部門의 附加價値率은 69.8%로 높다.

⑨ 1980年度에 全産業平均 外貨稼得率은 61.8%로서 下落趨勢에 놓여 있다. 同年度 製造業部門의 外貨稼得率은 62.3%이며 이 部門중 重化學工業의 外貨稼得率은 50.4%로 낮은 수준이다.

⑩ 1980年度에 全産業平均 自給自足度는 94.8%로 上昇趨勢에 놓여 있으나 鑛業部門의 自給自足度는 14.3%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前述한 10가지의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産業構造가 매우 不健實하고 自立經濟의 基盤이 微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즉 ①우리나라 貿易收支赤字의 構造的 要因 ②輸出的 波及效果低落의 構造的 要因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로 産業構造의 不健實性이 貿易收支赤字의 構造的 要因이 된다는 것을 立證하는 근거는 <表-14>와 <表-1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全期間을 통하여 輸入이 항상 輸出을 초과, 國內需要가 國內生産을 언제나 앞지르므로 貿易收支 또한 항상 赤字를 보여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産業構造의 不健實性이 우리나라 經濟成長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輸出의 波及效果를 低落시킨 構造的 要因이 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하는 근거는 <表-1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全期間을 통하여 輸出의 生産誘發係數가 增加趨勢에 놓여 있는 반면에 輸出의 附加價値誘發係數는 減小趨勢에 놓여 있으며, 輸出의 雇傭誘發係數는 급격히 下落하고 있으나 輸出의 輸入誘發係數와 에너지誘發係數는 上昇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脆弱한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를 健實化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輸入誘發的인 現在의 産業構造를 한시 바빠 高附加價의 産業構造로 유도 및 개선시켜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改善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技術開發 ⇒ 生産性向上 및 品質改善 ⇒ 高附加價値 및 輸出增大 ⇒ 持續的 成長 및 國

<表-15>

貿易收支赤字의 構造的 要因: 輸出과 輸入의 側面

	1962~81年 年平均	1981	1982	1983
輸 出	\$ 67.8 億	\$ 210 億	\$ 216 億	\$ 242 億
輸 入	\$ 88.6 億	\$ 261 億	\$ 243 億	\$ 262 億
GNP 에 대한 輸出入의 比重	52.2 %	75.7 %	69.9 %	67.4 %
輸出에 대한 輸入의 比重	179.8 %	124.5 %	112.2 %	108.1 %

資料: 韓國銀行

輸出의 波及效果

<表-16>

	1970	1975	1978	1980
生産 誘發 係數	1.69	1.84	1.85	1.86
附加 價値 誘發 係數	0.74	0.64	0.66	0.65
輸入 誘發 係數	0.26	0.36	0.34	0.35
에너지 誘發 係數	-	0.12	0.11	0.16
雇 傭 誘發 係數 (10 億원 수출 단위당)	2,208 名	663 名	404 名	360 名

資料: 韓國銀行

際收支改善의 開發戰略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둘째로 輸入代替 즉 部品の 國産化率을 높힘으로써 外貨稼得率을 높려야 될 것이다. 상술하면, 1980年 重化學工業部門의 國內生産 構成比는 51.6%이고 輸出商品의 構成比는 52.1%인데 이는 우리나라 工業의 중심이 輕工業에서 重化學工業으로 점차 이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1980年 重化學工業部門의 輸入商品構成比는 81.1%, 輸入誘發係數는 0.50, 輸入依存度는 31.1%, 輸入係數는 23.7%, 外貨稼得率은 50.4%인데 이것은 重化學工業部門이 脆弱하다는 것을 나타내 줌과 동시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輸入代替의 段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重化學工業部門의 構造的 改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시간이 요한다는 점과 現行 輸出增大方案에는 限界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輸入쪽으로 눈을 돌려 특히 一般機械類의 輸入代替産業을 육성해야 될 것이다. (1983年 一般機械의 輸出實績은 5억 2천 9백만 달러이었으나 輸入은 무려 22억 2천만 달러였다.)

세째로 重化學工業構造가 단시일내에 健實

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섬유·의복·피혁과 같은 輕工業製品의 外貨稼得率을 戰略적으로 높여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조업수출상품중 섬유·의복·피혁의 外貨稼得率은 60.8%로 가장 높고 同製品의 수출상품구성비는 약 1/3(32.5%)을 차지하고 있으나 輸入商品構成比(5.0%)에 비하여 輸入誘發係數(0.39)나 輸入依存度(15.0%)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네째로 1983年 工業部門別 外貨稼得率을 보면 輸出物量이 상대적으로 많은 重化學工業이 58.6%로서 輕工業(65.2%)보다 낮게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重化學工業이 아직도 效率的인 生産體制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最終段階에만 치중되어 있어 基礎原料 내지 中間材의 輸入依存度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重化學工業部門의 構造的 調整作業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中小企業을 部品專門業體로 육성해야 될 것이다.

다섯째로 政府의 輸出褒賞制度를 物量的 實績基準에서 高附加價値 및 高外貨稼得率의 基準으로 전환 및 토착화시킴으로써 現在 不健實한 産業構造가 高附加價値 및 高外貨稼得率의 産業構造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다.♣